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김 윤이(서울기독대 강사) 아브라함 전승에 나타난 사라 죽음의 의의 88

구속사는 크고 작은 희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완성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이며 여성적인 영성은 남성적이고 양성적인 영성에 비해서 도외시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신학적인 의미도 간과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사라의 죽음(창 23장)을 대상 21장과 히 11장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한다.

www.kci.go.kr

아브라함 전승에 나타난 사라 죽음의 의의

김 윤이 | 서울기독대 강사

1. 문제제기

성서 내에 기술되어 있는 인류 구원의 역사[1]는 누군가의 희생 혹은 죽음 등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다.[2] 때로는 작은 희생들을 통해서, 때로는

1) 성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은 '어머니의 혈통'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탄생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속사의 시작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씨(זֶרַע 제라)의 약속은 그의 씨가 아닌 창 3장 15 표현대로 '그녀의 씨(זַרְעָהּ 자르아흐-사라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 지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사라, 리브가,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되며 하나님의 약속도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도 없이 살면서도 그들의 '아내들'은 모두 아람 나라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데려왔음을 깊이 숙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족장들의 이러한 특별한 계보를 중요시했던 창세기 기자는 그 예로서 창 23장의 위대한 여족장 사라의 죽음을 알리기 이전에 그녀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리브가의 족보를 창 22장 23-24절에서 먼저 소개함으로써, 사라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며 리브가에게 전승될 것임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병렬, 「에레츠 이스라엘」 (서울: 요단출판사, 1994), 27-28쪽;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구속사에 차지하는 위치는 충분히 해석되어져 온 반면에 여족장 사라에 대한 해석은 축소되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제 족장 언약과 구속사내에서 사라를 비롯한 여족장들의 위치를 새롭고 폭 넓게 접근해갈 필요성이 있다.

2) 특히 구약 사 52장 13절 - 53장 12절의 종의 노래에 대한 이해에서 구속사 혹은 메시야의 '섬김과 희생적인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 나타나 있다. 또한 신약에서도 요 12: 24의 '한 알의 밀알'에 비유에서도 예수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섬김과 희생의 신앙'을 부탁하셨다. 여기서 밀알의 비유는 '죽음과 부활'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는 물론 교

www.kci.go.kr

위대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는 구약에 이어 신약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으며, 작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 시 어린 아기들의 죽음[3]을 통해서도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한 걸음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 이야기에서 적극적인 경건성(양성적 영성)은 강조되어 해석되고 있는 반면에, 수동적인 경건성(음성적 영성)은 묻혀서 해석되거나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신학적 의미도 간과되기 쉽다.[4] 더구나 요즘과 같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선전해야 하는 시대에 있어서 소리 없는(음성적) 죽음이나 희생은[5] 약한 자들의 어리석은 소행으로 치부되기 쉬우며,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경영주의적 논리에 따라 성장일변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침이 강조되는 실정이다 보니, 값진 희생의 의미들이 무색해 보이거나 퇴색 혹은 왜곡되어 버리기까지 한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 이삭, 다윗 등의 인물들은 커다란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위인으로 인정되지만, 사라나 리브가와 같은 여성들과 평범한 백성들은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소위 주인공 설화의 조연으로조차도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6]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사건과 인물들 뒤에 있는 크고 작은 희생들은 간과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학적 과제이며, 고무되어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성경 본문 내에 묘사된 그들 혹은 그녀들의 지혜와 희생과 결단의 모습들이 간과되거나 축소됨 없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회 내에서 마저도 기독교를 이분법적인 승리의 종교로만(전투적인 종교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네이버 '희생의 종교' 검색 참조; 온전한 희생(헤렘)과 세계 평화(샬롬)에 관해서는 한 동구, 「신명기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4), 156-201쪽 참조.

3) 이 요엘, 「고고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서울: 평단출판사, 2006), 124-138쪽 참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어린 아기들의 죽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 번역에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 아기들에게 다시 한 번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4) 한 동구,「창세기해석」(성남: 이마고데이, 2003), 262-267쪽 참조.

5) 그 예로서 삼하 11-12장의 우리야 희생은 다윗의 이야기에 묻혀서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의 첫 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의미 있게 보상되고 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마 1:6)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함으로서 그의 희생을 간과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희생, 즉 '구속사의 연결고리'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물론 근래에 들어 사라와 리브가와 하갈과 다말 등 구약 성서내의 여성들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다.

www.kci.go.kr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창 23장을 중심으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비교 본문으로서, 대상 21장에서 백성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신약에서 히 1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재해석을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본문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들을 구속사적인 언약의 성취의 차원에서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7]

본 논문은 성경을 문학 역사적인 방법과 더불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통해서 연구할 것이다.

2. 본문 연구

1) 아브라함 설화 속의 사라 이야기(창 23장의 전후 문맥적 상황)

아브라함은 창 12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고, 세계 만민을 위한 축복의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 소명을 받는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의 연결고리 역할의 핵심에 여족장[8] 사라가 있으며, 그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축복의 '직접적인 통로, 즉 자손과 땅 언약의 직접적인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석서들은 창세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 해석에 중점을 두고 여족장 사라(שָׂרָה 사라/황녀, 여성 우두머리, 황후, 여성 방백)'의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경우 성경을 소위 영웅적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서 해석의 균형이 깨어져서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신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아브라함의 설화들 속에 기술된 사라의 이야기들을 '의심과 기억의 해석학'을 통한 평등의 메시지 가운데서 새롭게 재해

---

7) 그러나 성서 내에는 족장사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와 해석들이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사 63: 16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를 지라도...야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시라"은 구속사에서 갖는 아브라함의 위치를 분명히 축소시키는 후기 예언서의 새로운 성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8) 여성 족장들의 계보에 관해서는 유 연희,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 창 24장의 주인공은 누굴까?," 「Hermeneia Today」 제22호(2003 봄), 46-59쪽; 유 연희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신학사상」 120집(2003년 봄), 101-109쪽 참조; 여기서 그녀는 최초의 여족장이었던 사라가 아닌, 두 번째 여족장 리브가의 특별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www.kci.go.kr

석할 것이다.[9]

창세기에서 사라는 매우 희생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춘 복잡한 인물이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통해서 다른 남자에게 양도(적절한 다른 표현을 찾기 힘들다)되는가 하면, 여족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적자인 이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가정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종을 내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족장 설화에 그려진 그녀의 모습은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매우 희생적이며, 때로는 매우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10] 그런데 창 22장은 아브라함 설화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장[11]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갑자기 사라져서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내 창 23장에는 그녀의 사망과 장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을 읽는 이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12] 여태껏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여족장 사라'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창 22장), 이내 사망해 버렸기 때문이다(창 23장).

과연 사라는 왜 창 22장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또한 창 23장에서

---

9) 이 경숙들,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52-57쪽; 특히 여성신학자들은 의심과 기억의 해석학을 통해 (남녀)평등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은 구약성서 해석의 기본으로 이해한다. 자세한 것은 한 미라, 윗글, 24-32쪽 참조.

10) 사라에 관한 여성신학적인 다양한 관점들은 한 미라, 윗글, 55-63쪽; 알리스 L.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장 춘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53-72쪽 참조.

11) 게르하르트 폰 라드, 「창세기(국제성서주석)」(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72쪽 참조. 약속을 받는 것에 관한 주제, 약속 상속자의 출생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모든 특이한 시련들에 관한 주제, 12장에서부터 모든 자료들의 민담들을 지배해 왔던 주제는 22장의 희생제사 민담과 더불어 종결되었다. 아브라함의 설화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최후적인 경험들, 유언적인 단계와 조치"들이다.

12) 이 영미, 「구약논단」 제30집, 27-28쪽 참조. 그러나 그녀의 견해대로 사라가 구속사의 무대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 가부장적 해석의 승리인지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는 성경에서 종교적 경건의 진정한 표상은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기독교에서 '희생 혹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창 22장의 이삭의 희생과 23장의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결정적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분법적인 승패의 원리로 구별할 수는 없다. 창 22 - 24장에서 실패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야훼는 '하나님 경외'를 얻어내셨으며,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과 사라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야훼의 섭리 안에서 '언약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겉으로 드러난 표상들에 대한 구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특히 막벨라 굴 매장지에서 삶과 죽음(철저히 대조되는 표상들)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창 23, 히 11: 8-22 참조).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4장 등의 신약의 말씀 -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롬 14: 8-9).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 24) - 들과 연결해서 구속사적으로·긍정적으로 새롭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www.kci.go.kr

는 부고 소식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그녀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역할(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며, 이제 그녀에게는 죽음으로써 감당해야 할 더 중요한 역할(사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13] 그녀는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늘 함께 하는 동역자이자 인생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반려자로서 등장하지만,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창 22장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창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약함과 시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음이 강조되어 있다. 즉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라로부터 독립된 한 개체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그의 실수와 허물 많은 모습들은[14] 창 22장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종결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총 평가하는 장에서 사라의 또 다른 역할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때, 홀로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철저히 혼자가 된다. 창 2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라에게 필요한 역할은 이야기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역할은 창 23장에서도 계속된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자신의 본성(중심)을 시험받게 된다(창 22장). 그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나 시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생 말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 사라를 잃게 되는 힘들고 비통한 상황에서 '땅 언약'을 제대로(아주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창 24장).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자신의 아내 사라와 같은 믿음

13) 창세기의 원 역사에서 여자에 의해서 원죄가 시작되며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파괴되듯이, 그러한 창세기의 도식 속에서 사라는 원죄의 영향 아래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동시에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된다.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섭리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14) 창 22장까지 가정사에 관련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비겁하기까지 하다. 그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두 번이나 넘겨주는가 하면(창 12, 20장), 사라가 하갈을 들여야만 할 때도(창 16장), 사라가 하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창 21장)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창 22장을 통해서 말끔히 해소되고 있다.

www.kci.go.kr

과 언약의 동반자, 즉 사라와 같은 여족장을 며느리로 맞이해야만 한다(창 23장). '언약의 계보'는 여족장 사라와 같은 며느리에 의해서만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라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녀의 역할(사명)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그녀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마치고 난 후에(창 22장), 그가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과제들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동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도록 하는 동인이 되고 있으며, 사라의 부재(죽음)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여족장 사라와 같은 며느리를 서둘러 맞이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혼(창 25장)에 앞서서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사라와 같은 여족장의 계보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 그는 '사라의 장막(הָאֹהֱלָה שָׂרָה 하오헬 사라)'으로 상징되는 여족장의 계보를 리브가에게 계승한다(창 24: 67). 사라의 생전에 여러 번 위협당했던(하갈에 의해서, 아비멜렉과 파라오에 의해서) 여족장의 계보는 사라의 죽음 이후,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생전에 하지 못한 것들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빠르게 완수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집안에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라와 같은 적합한 여족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절감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마저 죽기 전에, 이삭이 더욱 나이 들기 전에 이 일을 완수해야 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것처럼, 창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에 이삭의 희생이 있었듯이,[15] 창 23 -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임무 완수에는 사라의 희생(죽음)이 전제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히 11: 8-22). 이와 같이 여족장 사라의 삶과 죽음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섭리가 강하게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그녀의 죽음이 창세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비교 본문들(히 11장, 대상 21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

15) 고든 웬함, 「IVP 성경주석(구약)」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5), 118쪽 참조. 웬함은 히 11장의 해석을 근거로 이삭의 희생은 단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까지 헌신한 최고의 모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한다.

www.kci.go.kr

2) 신약과 연결해서 사라 읽기(창 23장과 히 11장의 비교 고찰)

히 11장에서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함께 칭송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녀로 인해서, 더 정확히는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11절), "늙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하였다(12절)"라고 말하고 있다. 히 11장에 따르면, 사라는 경수가 그쳤으며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이지만, 사라를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는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죽은 사라를 통해서 구속사의 터전이 될 약속의 땅(가나안)이 선취되었다(히 11: 13과 창 23장 비교).

히 11장에서 그녀의 중요한 위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히 11장 8-16절(또는 히 11: 8-22까지)이 '전체적인 맥락(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에서 이해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주석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단락을 8-10절로 끊어서 고찰하는 경우가 많다.[16]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라를 빼고 주석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주석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관한 첫 번째 설화(히 11: 8-16)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믿음의 해석은 사라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라를 통해서 '자손의 언약과 땅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고 있다. 자손의 언약은 하나님의 미쁘심(히 11: 11)을 믿었던 그녀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성취되며, 땅의 언약은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문맥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소위 아브라함 설화(히 11: 8-16)의 중심(히 11: 11-12, 그녀의 잉태를 통해서 생육함)에 사라의 이야기를 배치시키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 두 편(히 11: 8-16과 17-19)에서 '죽음'에 연관된 단어를 4회 이상(이삭과 요셉의 이야기인 히 11: 22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총 6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데 '죽음'이라는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김 상래,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의미 재해석," 「구약논단」 제14권 4호(2008. 12), 85-102쪽 참조.

www.kci.go.kr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히 11: 11)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히 11: 13)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히 11: 19)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히 11: 19)
믿음으로 임종 시(히 11: 21, 22)

족장 설화에서 죽음의 모티브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것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이며,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게 된 것 역시 그들이 죽어서 땅에 묻힐 때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장소인 무덤이 땅 언약 성취의 첫 번째 장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17]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상징으로써 그 땅에 묻히기를 소원한다(야곱과 요셉-창 47: 30; 50: 25).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사라와 족장들과 그의 아내들이 죽은 후에야 언약의 땅에 정착하였듯이(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신약에서도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다"(히 11: 16)고 말함으로써 진정한 언약의 성취를 '죽음'과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에게 죽음의 모티브는 아브라함 언약을 푸는 중심 주제어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죽음은 창 23장의 '사라의 죽음'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라와 그녀의 죽음을 통한 막벨라 굴 구입 사건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약의 해석의 단초가 아브라함 설화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으며, 그 출발이 사라의 죽음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히 11장과 창 23장을 비교 고찰한 결과, 아브라함 설화에서 사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그녀의 '임신과 출산'(히 11: 11)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히 11장 8절의 '기업으로 받을 땅'과 히 11장 9절의 '믿음의 족장들(이삭과 야곱)의 계보'는 오로지 약속하신

17) '우물'은 삶, 특히 사막에서는 생명 혹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 언약 성취의 두 번째 장소가 된다. 무덤은 당장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무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부활(더 나은 본향)과 관계되어 있으며 더 나은 생명(신앙)과 관계되어 있다(히 11: 8-22). 하나님의 땅 언약의 첫 번째 성취가 무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 있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이의 미쁘심을 알았던 '여족장 사라의 삶과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약 2장 14-2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허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 22장에서와 같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믿음의 조상(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가능했다. 또한 히 11장에 따르면, 사라의 출산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땅 언약과 자손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삭이 바쳐지는 '죽음의 모티브'와 사라의 사망이라는 '죽음의 모티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족장 사라의 죽음과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희생이라는 중요한 두 인물의 죽음(혹은 희생)의 모티브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18]

하나님을 경외(יְרֵא אֱלֹהִים 여레 엘로힘/창 22: 12)하는 믿음이 있다면, 희생이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אֱלֹהִים יִרְאֶה 엘로힘 이레/창 22: 8, 14)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창 23장). 희생과 죽음이 슬프고 비통한 일인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러한 희생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지고 자신의 사명이 빠르게 완수될 수 있음을 사라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알 게 된다.

3) 창 23장 다시 읽기

창 23장은 폰 라드 이후 제사장 문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19] 사라의 죽음에 관한 보도(창 23: 1-2)와 계보론적 보도(창 23: 19; 참조 창 21: 2-5; 25: 7-8)를 제외하면 제사장 문헌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20] 고대 근동의 토지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

18) 그러나 창 22장에서 이삭의 죽음은 높이 평가되는 반면에, 22장에서 사라의 부재와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신학이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매우 강조한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와 아브라함의 사명이 완성되어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요 19: 30)"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 사명이 완수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 P 자료들만이 알고 있는 정확한 연대기를 볼 수 있다. 모든 자료들이 병합됨으로써 이 연대기가 족장 설화 전체에 걸쳐 권위를 갖게 되었다. 폰 라드, 윗글 272쪽; 한 동구 「오경이해」(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57쪽 참조.

www.kci.go.kr

과 히브리어 발달과정의 변화에 대해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창 23장의 연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21] 그러나 창 23장이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매우 '세속적인 협상'과 '전기적인 관심'만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며,[22]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는 창 23장을 아브라함의 토지 매입 협상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한 편협한 해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창 23장은 일반적으로 해석되어 온 것과 같이 상당히 세속적이며 전기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창 23장을 아브라함의 토지 매입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창 23장의 막벨라 동굴과 주변 땅의 구입에 대한 협상은 한 사람 '사라의 죽음'으로 발생된 사건이기에, 사라의 죽음과 관련하여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 23장 속에 그려진 희생의 섭리와 언약의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고 말 것이다.

우선 사라는 하와 이후 창세기의 무대에 소개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성이다. 가인에서 아벨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거의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누구의 아내로서만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사라는 개인적인 역경을 뚫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만한 영웅적인 역할의 여성으로 등장한다. 또한 사라는 사망한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족장의 아내이다. 그녀의 나이를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기록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미드라쉬는 그 나이에 상징을 두고 해석하고 있다. 사라의 나이에서 100은 장수를, 20은 아름다움을, 7은 흠이 없는 온전함을 상징한다. 최소한 최종 편집자들로 인정되는 P기자들에게 숫자는 확실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족장 사라는 가족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매우 희생적이며 동시에 결단력이 강한 인물로 기술되어

---

20) 블룸은 창 23장은 원래 '독립된 전승'임을 주장하며, 헤브론 일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이야기로 보았다.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yun: Neukirchener Verlag, 1984), 441ff. 참조.

21) P 문서와 J 문서의 결합에 관해서는 고든 웬함, 「창세기(WBC주석 2)」(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6). 원제는 Gorden J. Wenham, *Genesis 16-50*(WBC 2), (Waco, Texas: Word books, 1987), 257-267쪽; 크리스토퍼 레빈,「편집자 야훼기자」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89-308쪽 참조.

22) Skinner, J.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ICC), (Edinburgh: Clark, 1930^2), 335쪽.

www.kci.go.kr

있다. 창 23장은 이처럼 적극적인 모습과 희생적인 모습을 둘 다 보여준 인물인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창 23장을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야훼의 땅 언약이 반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23] 그렇게 반복된 야훼의 땅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막바지인 사라가 죽은 후에,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 23장에는 가나안 땅에 아내를 매장할 자신 소유의 땅이 없어 암담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사라의 시체 앞에서 통곡하고 울다가 헷 족속을 찾아가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נָתַן 나탄)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창 23: 4)라고 청한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의 첫 소유지이자 유일한 소유지인 막벨라 굴과 밭을 준가(כֶּסֶף מָלֵא 케셉 말레/높은 가격)를 주고 구입하게 된다(창 23: 18). 그런데 죽은 사라를 위한 묘지를 구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첫 소유지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창세기 전체의 족장사와 또한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24]

(1) 헤브론 땅-막벨라 굴과 토지 소유의 의미

창 23장 1-3절에서 사라의 죽음의 장소가 헤브론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옛 지명 '기랏아르바'는 네 구역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뜻한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헤브론은 포로 후기 삶의 자리에서 에돔 족속과의 소유권 문제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며, 왕조 시기에는 유다 왕 다윗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한 곳으로서, 유다 지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25] 또한 헤브론은 아브라함 설화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즉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실제적으로 떠나게 된 후'에 하나님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재확인된 곳'이다(창 12: 7; 13: 15-16 비교).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는다. 더욱이 그곳은 여족장

23) 창 12: 1, 7; 13: 15; 15: 7; 15: 18; 17: 8.

24) 묘지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각주 15 참조.

25) 자세한 것은 크리스토퍼 레빈, 「편집자 야훼기자」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89-308쪽 참조.

www.kci.go.kr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억들과 연관된 장소였다. 야훼께서 그녀에게 1년 안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헤브론의 마므레였다(창 18: 1-5). 창 13장 14절 - 18장 15절에 따르면, 땅과 후손과 언약 관계의 축복에 대한 위대한 약속들의 대부분이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지냈던 시간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커다란 문제에 봉착한다. 그녀의 시신을 어디에 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토지 없는 나그네였으므로 이러한 일에서 원주민인 헷 족속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협상하는 것뿐이다. 아브라함은 먼저 사실적으로 자신의 법적 상황을 진술한다. 그는 그곳의 완전한 시민이 아닌, '우거하는 나그네'로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된 토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토지라 하더라도 일단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와 그 주민들 사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사는 한, 땅의 소유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죽자, 땅의 소유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 되었으며, 야훼의 약속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었다. 아내 사라가 죽고 자신마저 죽는다면, 하나님의 땅 언약의 성취는 묘연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자신 소유의 땅에 매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수 없으며, 사라의 자손에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을 수 있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레아 등 족장과 족장의 아내들은 그 곳을 선산으로 삼아 매장될 수 있게 되었다(창 49: 29-32). 그러므로 이제 그 곳은 족장들의 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상징적인(신학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26] 창세기는 계속해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네가 보는 땅과 네가 종과 횡으로 가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 14-17).

---

26) 같은 장소에 매장된다는 것은 가족의 결속력과 더불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고든 웬함, 윗글, 267쪽 참조.

www.kci.go.kr

이처럼 헤브론 땅의 소유자가 변경된 사건은 신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아내 사라도 죽었고, 이제 아브라함도 죽겠지만, 그의 소유로 된 땅이 공식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즉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작은 밭과 가족들을 매장할 굴을 소유한 그 이상의 의미가 시작되고 있다. 막벨라 땅을 구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이 전체 가나안 땅을 획득하는 목표를 향하는 첫 단계이자, 가나안 땅의 전체 소유권 이전(移轉)에 대한 상징이 된다.[27] 이런 이유로 창세기는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으며(23: 2, 19), 그러한 헤브론 땅 거래 협상과 지불이 그 도시의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복하여 보도하고 있다(10, 13, 16, 18절). 이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의 정당한 소유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 오경의 주제라는 클라인스의 주장[28]은 타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라의 죽음을 동인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땅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라의 죽음과 매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의 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상징되어 있으며, 그것은 구속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창 23장은 더 이상 토지 거래 협상을 기록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전기적인 글이 아니다.

(2) 사라의 불임과 그녀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축복의 통로 사라)

창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울며 애통하다가(הַלְסְפֹּד וְלִבְכֹּתָ 리스포드 버리브코타흐) 일어난다(קוּם 쿰). 그리고 비로소 땅 언약을 실행하러 가게 된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중에서 방백(נָשִׂיא 나시/통치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 통치할 땅이 없는 위대한 방백(נְשִׂי אֱלֹהִים 너시 엘로힘/하나님의 통치자)인 것이다. 창 23장의 문맥에서 헷 족속이 아

27) 마치 예레미야가 심판(멸망 혹은 죽음)의 시기에 하나멜의 땅을 구입함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과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렘 32장).

28) Clines, D. J. A.,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SOTSup 10), (Sheffield: JSOT, 1978).

www.kci.go.kr

브라함을 위대한 방백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와 체류자(גֵּר וְתוֹשָׁב 게르 버토샤브)로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호의적인 주민들로부터 더욱 일찍 땅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처음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저 우거하는 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동정심을 구하여, 죽은 자를 묻을 땅을 구하는 상주로서 나그네에게 땅을 줄 것(נָתַן 나탄)을 요청[29]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지금까지 가정 일에 있어서 특히 사라에게는 상당히 소극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 왔다(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두 번이나 양도한 일,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일 등). 그러나 이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거나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는다. 거래를 시작한 후, 그의 모습은 사라를 그 땅에 매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늙어 죽게 될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후손들도 약속의 땅에 매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이며 노련하며 주도면밀하다.[30] 그는 자신이 맨 처음 요청했던 대로 '무료'로 무덤 사용권을 얻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을 준가(כֶּסֶף מָלֵא 케셉 말레/후한 값)인 은 400세겔을 치르고 공식적으로(창 23: 10, 18절;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移轉)하는 데 성공한다.[31]

아브라함이 울며 애통하는 유일한 장면은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이다. 물론 일반적인 고대의 상례로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겔 24: 15-17),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사지로 내몰아야 할 때도 울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

29) 4절에 사용되고 있는 נָתַן(나탄)은 주다, 허가하다, 내어주다, 용납하다, 상납하다 등의 의미가 있으나, 9절에서는 준가(בְּכֶסֶף מָלֵא 버케셉프 말레/후한 가격)를 주고 거래(נָתַן 나탄/양도하다)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소유권의 이전을 확실히 하고 있다.

30) 막벨라 굴의 매입 과정에서의 그의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모습은 주석들 참조. 천 사무엘, 「창세기 주석」 「창세기 주석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15-323쪽 참조. 월터 브르그만,「현대성서주석 창세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300-303쪽 참조.

31) 요셉은 은 20개에 대상들에게 팔려간다. 은 20개가 보통 노동자의 일년 분의 임금으로 환산될 경우, 400세겔이라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이 병렬, 「에레쯔 이스라엘」 (서울: 요단출판사, 1994), 27-28쪽 참조. 이렇게 후한 값(בְּכֶסֶף מָלֵא 버케셉프 말레/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장면은 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오른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 참조.

www.kci.go.kr

나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결연히 일어나야만 했으며, 그로 인해 언약의 성취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사라의 죽음은 창세기의 원리대로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원죄에 의한 영생의 차단으로서의 죽음(노환에 의한 일반적인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그녀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슬프고 애타는 일이다. 그러나 창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특별한 효력을 남기는 죽음이 된다.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 아브라함은 땅 언약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슬프고 애통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사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일어서야만 했다. 마치 다윗이 7만 명의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과 같이, 그는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사라는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었으며, 죽어서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되었다. 살아서는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죽어서는 '땅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된 것이다.[32] 하나님으로부터 '여족장(שָׂרָה 사라/여자 방백, 황녀)'[33]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라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 땅에서 장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창 15: 15). 보통 아내들이 남편보다 장수하듯이 그녀가 아브라함보다 장수했다면,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토지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

32)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견될 만한 인간의 죽음은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 죽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치가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으며 구속사 내에서 구속사의 씨와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속사 내에서 가치 있는 죽음이 되었다 즉,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으며, 성서는 이점을 '땅의 소유와 리브가의 계승'을 통해서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라의 죽음과 삶 속의 희생들을 통해서 구속사는 커다란 전환점(자손과 땅 언약의 성취)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33)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개명과는 다르게 '사라'라는 이름은 그 정체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개명이다. 아브람(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많은 이들의 아버지), 사래(나의 공주 혹은 왕녀)에서 사라(여자 통치자)로서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녀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인 아브라함의 결단을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장수의 언약을 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녀의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종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며(창 16, 21장),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그두라(아브라함의 후처)와 그의 후손들(아랍족속) 역시 커다란 축복을 얻게 됨으로써(창 25장),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라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라의 고통은 모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성서는 고통의 의미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라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언약과 보편적 통치, 즉 하나님의 축복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Specialism)을 이루고,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축복(Universalism)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라의 희생 이야기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אֱלֹהִים יִרְאֶה 엘로힘 이레/창 22: 8, 14)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은 단연 사라이며, 특히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 그녀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하갈 혹은 그두라)이 아닌 사라의 태(계보)를 통해서 자손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땅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라의 '출산'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고 있다.[34]

구약 대부분의 주석서들(특히 창세기의 해석사)은 남성 주인공, 특히 소위 아브라함과 다윗 등과 같은 유명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35] 족장 설화를 자세히 고찰해 보면,[36] 특히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

---

34)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창 22장),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땅 수여 언약을 실현한다. 물론 이삭이나 사라가 그들의 희생을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אֱלֹהִים יִרְאֶה 엘로힘 이레) 안에서 그들의 순종과 희생은 비중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야의 죽음과 예수 탄생 당시 아기들의 희생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5) 보이는 것(양성적 경건)보다 보이지 않는 것(음성적 경건)이 중요함에 관한 대표 구절로서 히 11: 1-2 참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www.kci.go.kr

와 라헬과 같은 여족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족장 '사라'와 '리브가'는 때때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남자 족장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속사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폭넓은 신학적 전망을 위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실들이 간과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창 23장과 대상 21장 비교 읽기

(1) 이름 없는 백성들의 희생과 야훼의 용서 섭리

대상 21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립을 위한 성전 터를 구입하는 장면으로서, 대부분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문서층에 해당된다.[37]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문서층의 대표적인 특징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공동체(그 땅의 사람들)를 견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정당성과 전통성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기술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상 21장은 삼하 24장을 자료로 하고 있으나, 그 기록 목적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 삼하 24장은 성전 건축과 아무런 관계없이 다윗 역사의 끝에 하나의 부록처럼 덧붙여져 있는 반면에, 대상 21장은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역사 서술에서 중요한, 특히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38] 여기서는 삼하 24장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대상 21장과 창 23장과의 유사점을 고찰해 봄으로써, 두 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6) 이 경숙들,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52-57쪽 참조. 특히 여성신학자들은 의심과 기억의 해석학을 통해 (남녀)평등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은 구약성서 이해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37)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학교 학위논문, 2006) 53-59쪽; 마틴 노트,「전승사적 연구들」(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출판사, 2004). 원제는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Auflage Max Niemeyer Verlag, 1943; 1957^2; 1967^3), 243-246, 321쪽 참조. 역대기 사가는 자신의 원본을 뛰어 넘어서 대하 3장 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가 창 22장 2절에 기록된 '모리아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삼하 24장을 뛰어넘어서 인구조사 사건(대상 21)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대상 22: 1). 이것은 사마리아 성전을 견제하기 위한 역대기 사가의 남 유다 예루살렘 중심적 역사서술의 특징이며, 조합(Kombination)방식에 의한 편집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

38) 임 태수, 「역대기상(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주석 12)」(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43쪽 참조.

www.kci.go.kr

대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게 한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괘씸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신다. 여기서 창 23장의 아브라함과 대상 21장의 다윗은 아이러니컬한 인물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은 아내를 매장할 땅 조차도 없는 '방백'(נָשִׂיא 나시/통치자)이었듯이, 대상 21장에서 다윗은 백성들 7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욕심 많고 고집스런 '왕' (מֶלֶךְ 멜렉)[39]으로 묘사되어 있다(대상 21: 1, 17). 역대기 사가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잘못과 허물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다윗 왕을 이상화시키는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였지만, 특이하게도 이곳 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죄를 삼하 24장보다 훨씬 더 부각시켜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삼하 24장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 때문에 다윗을 통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 아니라(삼하 24: 1), 자신의 교만과 고집 속에서 사탄의 격동(ס ת 쑤트)[40]에 넘어간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41] 장군 요압은 그러한 왕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종용하나 무시된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계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한다(대상 21: 3, 6). 물론 역대기 사가가 다윗의 죄를 미화시키거나 삭제하지 않고 더욱 강조하여 역사를 서술한 것은 이러한 역사 서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터가 확정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

39) 삼하 24장에서 하나님께 수트(격동, 감동)되었던 다윗은 백성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죄책감을 느끼고 바로 회개한 인물이지만, 대상 21장에서 사탄에게 격동되었던 다윗은 자신이 인구 조사했던 백성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본 후에야 회개한다. 김 윤이, "참회의 기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그 말씀)」 (2009년 3월호) 참조.

40) סוּת (쑤트)는 여기서 히필(사역형)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미혹하다, 자극하다, 격동시키다로 번역될 수 있다. 윌리엄 할러데이,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서울: 솔로몬 출판사, 1994) 338-339쪽 참조.

41) 삼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을 격노케 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도 전에 자신의 허물은 깨닫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격노케 하여 징계를 당하고 있는 자는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며, 오히려 백성들은 다윗 왕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왕 대신 희생된 자들로 기술되어 있다. 김 윤이, 윗글 "참회의 기도"; 임 태수, 윗글, 355쪽 참조; 대상 21장 26-27절에는 대상 15장 26절, 16장 1절과는 다르게 죄를 범한 다윗이 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www.kci.go.kr

었을 것이다.[42] 그런데 여기서 성전 터를 확정하는 데 사탄에게 격동되었던 다윗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결정적인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서들에서 도외시되고 있다.[43]

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탄에게 격동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주도한 인물이며, 백성들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묘사된다. 실제적으로 대상 21장에서 죽임 당한 7만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인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 즉 하나님의 소관인 병적 조사(민 26장)를 실시한 통치자로 인해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죽임 당한 자들로 기술되어 있다(삼하 24: 1 참조). 그들은 사탄에게 격동된(וַיָּסֶת 쑤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희생된 자들인 것이다(대상 21: 1, 17). 그들은 적들과 싸우다가 죽지도(석 달간 대적의 칼에 쫓김-다윗의 거부), 기근에서 살아남으려고 분투해보지도 못한 채(3년 기근[44]-하나님의 결정에서 제외됨: 13절),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삼일만에 죽음(יִפֹּל 잇폴/엎드러지다, 죽다 14절) 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대상 21: 14).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격동과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다윗처럼 자신들의 죽음(징계의 방법)을 선택(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의 죽음은 창 21장의 사라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매우 큰 효과를 도출한다.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왕과 장로들은 엎드려(יִפֹּל 잇폴 16절) 기도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속죄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터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150만 명 이상)[45]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왕도 나머지 백성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구입된 예루살렘 성전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

42)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학교 학위논문, 2006), 53-59쪽 참조.

43) 제이콥 엠 마이어스, 「역대기상(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임 태수, 윗글; H. G. M. Williamson, 「IVP 성경주석(구약)」 등.

44) 삼하 24장 13절에서는 '7년' 기근으로 더욱 엄벌에 속함.

45) 요압에 의해서 계수되지 않은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수를 고려.

www.kci.go.kr

된다. 유대교와 기독교 성전의 출발점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들의 희생을 동인으로 해서 확정되고 구입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듯이, 이제 백성들의 속죄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탄의 격동과 인간(여기서는 다윗)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백성 7만 명의 값진 죽음(희생)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다.

대상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해서 어린 아기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는 이집트 땅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마 2장에 기록된 이름 없는 아기들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구속사를 여는 값진 희생이 되었다면,[46] 대상 21장의 이름 없는 백성들의 죽음은 왕과 다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을 주는 값진 속죄의 희생이 된 셈이다.

이와 같이 역대기 사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신학적 해석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삼하 24장은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다윗 왕이 두 번이나 '참회의 기도'(삼하 24: 10, 17)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47] 대상 21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일어난 사탄에게 격앙된 다윗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과,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 터를 확정 받게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기

---

46) 아기 예수에게 닥친 일은 모세에게 닥친 일과도 유사하다–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모세의 목숨을 노려서 이집트에서 유아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출 1: 15-22). 이처럼 아기 메시야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곤경과 죽음의 희생을 몰고 온다. 사실상 마 2장 16-18절은 렘 31장 15-17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다. 렘 31장 16-17절에서 하나님은 라헬의 자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하신다.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즉 "네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그들이 희생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창 35장 19절과 47장 7절에 따르면, 라헬의 무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 2: 16-18의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모자들이 겪은 불행은 렘 31장에서 예언되어 있으며,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사건과 연결되어 보상되고 있다. 렘 31장에서 라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들의 희생은 마태와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 어떤 죽음보다 값지게 보상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일에 갚음이 있을 것인즉...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렘 31: 16-17). 구속사와 연결되어(예언을 통해) 사라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묻히지 못한 라헬의 고통과 죽음도 보상된 셈이다.

47) 김 윤이, "구약에 나타난 참회의 기도," 「목회와 신학(그 말씀)」 (2009년 3월) 107-129쪽.

www.kci.go.kr

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대기 사가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안타깝게 죽은 백성들의 희생을 간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 희생의 값어치를 성전 터의 구입, 즉 구속사와 연결시켜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하보다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역대기 역사서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참회의 기도가 아니라(삼하 24장), 평범한 백성들의 죽음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48]

정리하면 대상 21장에는 인과응보를 포기하면서까지 백성들의 희생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다윗이 회개(**יִפֹּל** 잇폴/엎드러지다, 죽다)하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떨어졌다(**יִפֹּל** 잇폴).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וַיִּנָּחֶם** 이나헴/긍휼히 여기다). 즉 다윗이 회개(16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엎드러진(14절)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다윗과 장로들 역시 백성들 7만 명이 죽은 후에(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입장이 변화되기까지, 첫 번째이자 결정적 동인이 된 것(14절)은 '백성들의 죽음을 통한 희생'이었다. 이처럼 대상 21장에서 백성들의 희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성전과 연결되어 구속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히 11장에서 죽음의 모티브를 강조하면서 족장사를 재해석했듯이, 대상 21장에서는 백성들의 죽음을 강조하는 역사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침묵하고 있다.[49] 단순히 결과적으로 다윗의 태도 변화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중점을 두고 해석함으로써, 백성들의 희생은 계속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3. 요약과 결론

위의 이야기들(창 23, 대상 21, 히 11)에서 '죽음의 모티브'는 매우 중요한 가치(**כֶּסֶף מָלֵא** 케셉 말레/높은 가격, 충분한 값)가 있음을 알 수

48) 역대기 역사서는 다윗 이상주의와 인과응보 사상이 매우 뚜렷한 정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 21장은 특이하게도 다윗보다도 일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격동된 다윗이 직접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인과응보 사상까지 양보 혹은 유보되고 있다.

49) 로디 브라운,「역대상(WBC주석 14)」 (김 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1). 원제는 R. Braun, *1 Chronicles* (WBC주석 14), (Waco, Texas: Word books, 2004), 378-389쪽 참조.

www.kci.go.kr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하나님의 때에) 사라를 데려가셨으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데려가셨다. 여기서 진정으로, 남은 자들(아브라함과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후한 값(동인)'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이었다. 사실상 남겨진 자들이 물질적인 후한 값을 치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응답)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들인 물질의 값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굳이 후한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한 것은 사라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주권(하나님의 언약)을 인식했기 때문이며(창 23장), 다윗이 굳이 자신의 정복지 안에 있는 땅을 후한 값으로 구입한 것(대상 21장)도 7만 명의 백성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식하는 표현(인구 조사와 대조되는 행동-하나님 경외)인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과 희생은 이방인들(헷 족속과 오르난)까지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결과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는 '양성적 신앙의 표상'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와 백성들의 죽음과 같이 그 결과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정적 동인이 되고 있는 '음성적 신앙의 표상'을 따라 읽어야 할 것인가? 사실상 이 둘은 성경 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신앙의 경건에서도 모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아브라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적인 표상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서, 음성적이며 희생적인 관점에 따라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평등하며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완성되었기에, 현대인이 읽을 때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의심과 기억의 해석학'에 따라 새롭게 읽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50] 성경의 중심 사상들이 심하게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51]

---

50) 한 미라, 윗글, 6-31쪽 참조.
51) 각주 1 참조.

www.kci.go.kr

사실상 구약 성경 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꼽히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의 뒤에는 무수한 희생의 이야기들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과 부하들과 백성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하며, 다윗의 '백성들'이 그러하다.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 없이 아브라함과 다윗 등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 크게는 하나님 구속사도 계속될 수 없었다. 결국 그러한 희생들 중에 가장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사는 인류 보편이라는 지평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와 백성들의 죽음과 희생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희생들 중 일부분이며, 동시에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희생의 의미를 망각한 채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거듭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매우 값진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동시에 매우 위험한 신학적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희생과 결단, 과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신앙은 숱한 희생과 숱한 결단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두 속성의 균형을 잃지 않을 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간혹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만나거나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황하거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들이 불행을 터부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성서는 희생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52] 교회의 부흥과 회복마저도 자본과 물량 중심주의에 의해서 판가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가 자신의 고유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희생들을 심사숙고하고,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죽음과 희생들을 성경이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록한 것(히 11장, 대상 21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희생 혹은 죽음 앞에서 편안하지 못하지만, 신

52) 물론 모든 경우가 사라 이야기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본문에서 고찰한 죽음이나 희생들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구속사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www.kci.go.kr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서술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희생의 의미가 슬픔 혹은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구속사의 완성)로 다가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서, 또 그러한 구원의 능력 안에서 교회 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롬 12: 1, 15: 16).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배로 '재현' 하는 것'에 근하고 있다(고전 11: 23-26).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앞으로 성서에 나타난 희생들을 통한 폭넓고 다양한 성서 해석들과 동시에 교회의 자기 희생적 삶과 희생적 예배 갱신에 대한 노력들 또한 계속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김 윤이,「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평택대학교 학위 논문, 2006).

_____,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구약논단」제 22집 (2006년 12월), 80-97쪽.

_____, "구약에 나타난 참회의 기도,"「목회와 신학(그 말씀)」(2009년 3월) 107-129쪽.

노트 마틴,「전승사적 연구들」(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출판사, 2004). 원제는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Auflage Max Niemeyer Verlag, 1943, 19572, 19673).

딜라드 비 레이몬드,「역대하(WBC 주석 15)」(정 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5). 원제는 Raymond B. Dillard, *2 Chronicles* (WBC 15), (Waco Texas: Word, 2005).

라페이 알리스 L.,「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장 춘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마이어스 제이콥 엠,「역대기상(국제성서주석)」(이 환진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원제는 Jacob M. Myers, *I Chronicles*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New york: Garden City,1981).

브라운 로디,「역대상(WBC주석 14)」(김 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1). 원제는 Roddy Braun, *1 Chronicles* (WBC주석 14), (Waco, Texas: Word books, 2004).

브르그만 월터,「현대성서주석 창세기」(한미· 공동 주석편집/번역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300-303쪽 참조.

슈미트 베르너 H.,「구약성서 입문 I」(차 준희/채 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원제는 W.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n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이 경숙들,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5).

www.kci.go.kr

웬함 고든,「창세기(WBC주석 2)」(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6). 원제는 Gorden J. Wenham , *Genesis 16-50* (WBC 2), (Waco, Texas: Word books, 1987).
_____,「IVP 성경주석-구약」(김 순영들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5), 118쪽.
유 연희,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 창 24장의 주인공은 누굴까?,"「Hermeneia Today」제 22호 (2003 봄), 46-59쪽.
_____,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신학사상」120집(2003년 봄), 99-129쪽.
이 병렬, 「에레쯔 이스라엘」(서울: 요단출판사, 1994).
이 영미, "성서주석과 해석의 윤리,"「구약논단」제30집(2008년 12월), 27-28쪽.
이 요엘, 「고고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서울: 평단출판사, 2006).
이 종록,「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본문 대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임 태수, 「역대상(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천 사무엘,「창세기(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레빈 크리스토퍼 ,「편집자 야훼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한 동구, 「신명기 해석」(서울: 도서출판B&A, 2004).
_____, 「오경이해」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_____, 「창세기 해석」 (성남: 이마고데이, 2003).
한 미라,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yun: Neukirchener Verlag, 1984).
Clines, D. J. A.,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SOTSup 10), (Sheffield: JSOT, 1978).
Skinner, J.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CC), (Edinburgh: Clark, 1930^{2}).
Williamson H. G. M.,「IVP 성경주석-구약」(김 순영들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5).

검색어

창세기 23장 • 히브리서 11장 8-22절 • 역대기상 21장 • 재해석
사라 • 죽음

투고일: 2009년 1월 16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15일

www.kci.go.kr

The Significance of Sarah's Death in the Abrahamic Traditions

Yoon-Yee Kim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yeong Taek University Ph. D.

Sarah, in the Abraham's narrative, plays her important role as a direct passage of God's blessing toward Abraham, which is of 'descendants' and 'land'. It is unfortunate that so little is heard about Sarah's role in many commentaries of Genesis. And it is worrying that the tendency to highlight only the prominent figures in the Bible may yield a partial understanding.

The present study will see how the promise of God, in Genesis 23, toward Abraham could be achieved sacrificing Sarah. Comparing the chapter with 1 Chronicles 21, how the promise of God toward Davidic dynasty was also realized sacrificing his people will be examined. The faith of Abraham and Sarah, interpreted in Hebrews 11 in the New Testament, will be examined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sacrifice in the Bible, especially worked out in the thoughts of the salvation history. Particularly this study employs the literary-historical criticism, a method of reading the bible as a whole and the hermeneutics of 'suspicion and memory', reconsidering the function and sacrifice of Sarah and people.

www.kci.go.kr

In Genesis 23 the bitter death of Sarah the priestess is followed by the realization of God′s promise to Abraham concerning land. As her death and burial occur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in Hebron shifts; it may imply the shift of the ownership of all the land in Israel, which is significant in the salvation history. It could be compared to the instance of Jeremiah′s purchase of Hanamel′s field in the time of judgement (i.e. destruction of death) as it symbolizes the restoration of God′s promise and Israel as a nation.

1 Chronicles 21′s report of purchasing the field in which a temple would stand, as God promised, also begins from ′the death(יִפֹּל) of the people′, being followed by the realization of the promise (rescuing from judgement). Here the people′s death (sacrifice) was of great effect just as Sarah′s death was. God′s judgement was cancelled as a consequence of their death; it was followed by David and the elders′ prayer of repentance and the rest of the Israelites could save their lives. In the end, with the enthusiastic participation of the gentiles, the ground for redemption and worship was confirmed and chosen.

The contents and themes in the two narratives, Genesis 23 and 1 Chronicles 21, are paralleling. Theses are, first, misery of the people related to death or sin; second, purchasing the fields from the gentiles; and, third, realization of God′s promises and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Thematically all the two narratives have a motif of ′death/ or sacrifice′,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omise, overcoming the death, that is associated with the salvation history. (Heb 11)

The two narratives also reinterpret the theological meaning of sacrifice. There were many sacrifices occurred in fact behind the anecdotes of the prominent figures in the Old Testament. A number of women, children, followers and people sacrificed, while Sarah and David′s people are good examples. Without their sacrifices there might have been no heroes such as Abraham and David, and no salvation history of God. Among the sacrifices Jesus′ one is fundamental in the salvation history, which then could possibly extend its limit reaching to all the people. Just as the New Testament recalls and inscribes the sacrifices in the

www.kci.go.kr

Old Testament (see Heb 11), they are to be reminded continually and newly in our current situati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sacrifices in the Bible, practised in the present study, may give us a clue to correct the problems of today's churches that overtly adore selfish capitalism and materialistic growth.

Keywords

Genesis 23
Hebrews 11: 8-22
I Chronicles 21
Reinterpretation
Sarah
Death

www.kci.go.kr

www.kci.go.kr